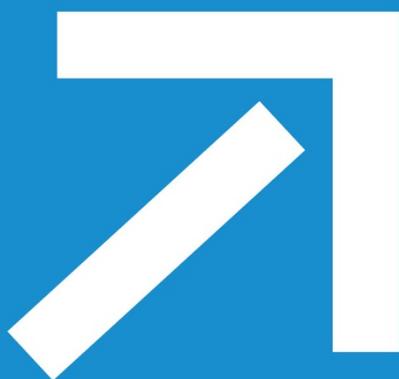




INSTITUT
FRANÇAIS
주한 프랑스문화원



한-프랑스 과학 및 대학협력

- 개요 -

한국의 대학분야 개요

한국의 경제 성장 요인으로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교육열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한국은 약 430 여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그 중 10 개교는 상하이 세계대학순위에서 500 위 안에 들어간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출산율 저하와 젊은이들의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 수와 졸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위해, 한국 정부는 대학들의 글로벌화하여 외국학생 유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학들을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 대학으로 평가가 난 대학들에게는 지원금 규모를 삭감하거나, 학교 폐쇄 명령도 내리고 있다.

한국의 연구분야 개요

한국은 연구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지출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선 투자분야는 4 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이다. 과학기술진흥정책은 다음의 4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스마트 교통 (자율주행차, 무인기), 융합분야 (정밀의학, 스마트 도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스마트 로봇) 산업기반기술 (스마트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의학,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또한 한국은 우주기술 및 우주발사체분야도 전략분야로 삼고 있다. 반면 인문사회 및 경제분야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아직 발전이 더딘 상태이다.

한국의 연구개발은 삼성, LG, 현대/기아자동차와 같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분야가 주도하고 있다 (연구개발지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 분의 3 이다). 이는 한국의 연구개발방향이 응용연구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 한국내 프랑스 협력현황 -

고등교육협력 및 유학생 수

프랑스는 중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영국 그리고 캐나다를 뒤이어 한국학생들이 유학하고 싶은 나라 8 위이자, 유럽 국가 중에서 첫번째로 선호하는 나라이다. 매년 약 2600 명의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오고 있으며, 90%가 넘는 한국유학생들은 학사 교환학생 과정을 주로 수학하며 특히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을 선호한다. 한국학생들은 특히 경영, 경제, 관리, 예술(디자인, 패션, 음악), 호텔외식분야(요리, 제과제빵), 문학,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다.

2018 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한국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약이 350 건 이상이 체결이 되었다. 대부분 협약이 학생 및 교수 교류 증진을 위한 것이며, 프랑스와 한국 고등교육기관들의 이중 학위제를 비롯한 공동지도박사논문 교류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2017 년도에 한국으로 유학 오는 프랑스 유학생 수가 약 1344 명이였으며(이 수치는 국제학생수 총 숫자의 약 1.1%에 해당함)유럽 유학생 중 프랑스 유학생 수가 가장 많다.

과학기술

7 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2018 년 7 월 6 일에 개최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 우선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신소재 및 나노기술, 생명공학/보건/실버경제, 정보통신, 항공우주, 환경과학, 기후변화, 해양학.



과학기술분야 특히 물리학과 원자력분야에서 한국은 프랑스의 중요한 협력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프랑스의 연구기관 및 연구조직으로는 파스퇴르연구소 1 개소, 국제연구실네트워크 (IRN – 구 GDRI) 2 개, 국제연합연구실 (LIA) 1 개소, 국제공동연구소 (UMI) 1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분석분야의 한-프랑스 가상공동연구조직인 ILLUMINE 도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중 11 개 기업이 연구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11 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에어리퀴드, 아케마, 아논, 다쏘시스템, 포레시아, 오랑쥬, 프로텍스, 르노삼성모터스, 사노피, 발레오, 베올리아.

2016 년에 발족한 프렌치 테크 커뮤니티는 한국과 프랑스가 자국의 혁신생태계를 상호간 소개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및 대기업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 헬스케어전문기업 연합 (Club Santé Corée)은 한국 내에 있는 프랑스 헬스케어전문기업의 모임으로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력을 한국정부에게 알리고 인정받아 프랑스기업들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하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프랑스 헬스케어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EFEO) 한국분원이 2001 년부터 고려대학교 내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요연구분야는 동북아시아 장례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북한 개성의 사적지에 관한 역사학적, 고고학적, 미술사적 연구, 19 세기말-20 세기초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학적 연구이다.

- 4 대 중점분야 -

1. 한국유학생 수를 질적, 양적으로 개선

현재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국제교류협약에 따라 프랑스로 유학을 오고 있다. 프랑스대사관은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수학하려는 한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려한다. 한국과 프랑스 간의 아직까지 협력이 많지는 않지만 기초과학, 엔지니어 분야에 학생들을 유치를 강화할것이다. 취업적격자라는 이슈가 갈수록 더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함으로, 한국학생들의 유학 중대를 위해 학위제를 늘리거나 공동지도논문 실행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와 한국 MOOC 플랫폼간의 협력 즉, FUN-MOOC 과 K-MOOC 은 새로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2018 년 리옹 3 대학에서 프랑코포니 관련 MOOC 강의를 개설)

2. 프랑코포니연합과 유럽연합 차원의 과학기술 및 대학분야 협력

아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북대학교가 프랑코포니대학기구(AUF)에 가입한 직후 한국은 2016 년 국제프랑코포니기구 (OIF)에 옵서버국가로 가입하게 되었다.

프랑스대사관은 대학교류와 연구협력 분야에서 여러나라들간의 다자협력관계와 제 3 국에서의 한-프랑스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3. 프랑스 유학생 네트워크 모임 확대

주한프랑스대사관은 한국프랑스알umni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알루미들의 커리어 경력을 위한 연례직업포럼 개최
- 프랑스와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알루미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 알루미 회원 정례 모임 개최, 테마별 컨퍼런스 주관 및 커리어관련 조언 및 한국 주재 프랑스 기업 혜택 제공

4. 홍보활동 강화 및 한-프랑스연구사업 지원

프랑스대사관은 한국과 프랑스의 연구기관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국의 과학기술인들에게 필요한 기관 및 연구자들을 소개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학박람회, 강연, 전시회등을 개최하여 프랑스의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의 우수성을 한국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대사관은 과학대중화를 위해 한국에 있는 전국의 과학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학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한국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프랑스유학과 프랑스연구자들과의 연구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프랑스대사관은 과학기술계에서의 남녀평등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한불 여성과학자 인물사진전인 영피니테 플뤼리엘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주요활동사업 -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PHC STAR)

STAR 사업은 한-프랑스 Hubert Curien 파트너십 연구협력사업이다. 프랑스측은 유럽외교부, 고등교육연구혁신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과 프랑스의 연구기관간의 과학기술협력발전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프랑스와 한국의 연구자들의 교류와 공동워크샵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가능한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신소재 및 나노기술
- 생명과학, 보건, 생명공학
- 정보통신
- 기초과학
- 항공우주
-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회적과제해결 및 인문사회과학
- 환경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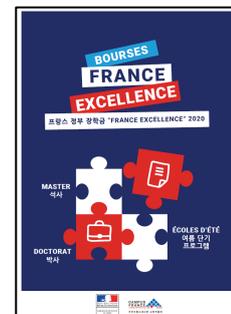
사업공고는 매년 1 월-2 월사이에 공지되며 해마다 15 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공동연구지원펀드

한국과 프랑스는 2019 년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연구사업을 진흥하기위해 20 만 유로 규모의 공동연구펀드를 발족하였다. 연구자 교류지원에 한정된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PHC STAR)과는 달리 이 펀드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지출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 사업선정결과는 2019 년 9 월에 발표되었으며, 푸와티에(Poitier) 대학교와 프랑스 릴인리아(INRIA)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

프랑스 엑셀랑스 장학금

프랑스 엑셀랑스 장학프로그램은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가거나 써머스쿨로 단기 유학 가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공 분야는 따로 제한이 없으나 이공계, 기초과학, 경제, 경영, 법학, 정치학 및 건축 전공 우선 선발한다. 학위 과정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진행될 수 있으며 유일한 의무 사항은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장학생들은 학위 커리큘럼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혜 기간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모집요강 :

- 9 월개강 학기때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1 년과정 또는, 2 년과정 또는 박사 과정으로 등록한 학생.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써머스쿨에 등록된 학사 3 학년 또는 졸업학년 또는 석사 마지막 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선발 과정동안 지원자들은 반드시 한국에 거주를 해야하며,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은 6 월중에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진행한다.
- 1993 년 9 월 30 이후 출생자이어야 함.(군복무를 완수한 남학생의 경우 1991 년 9 월 30 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 매달 생활비 (석사과정의 경우 700 유로, 박사 과정의 경우 1050 유로), 한국-프랑스 왕복 항공권, 학비 연간 최대 5000 유로까지 지원(규정에 따라 지원금액 책정)
- 대학 기숙사 배정 (정원 제한), 기숙사 비용은 장학생 부담
- Etudes en France 행정 비용 면제 (미리 납부한 경우 추후 환불)
- 장학금 지원은 다음 학년 진급을 전제로 함

한국프랑스알umni

주한프랑스대사관은 2016 년 10 월 16 일 한국프랑스 알umni 네트워크를 한불 수교 130 주년을 기념하는 2015-2016 프랑스-한국의 해 일환으로 공식 런칭했다. 처음 런칭할때 600 명이었던 회원수가 현재 프랑스 알umni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수가 만명이 넘는다.

한국프랑스 알umni 네트워크는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영향력있는 알umni 이들을 선별하고 국방 알umni 및 한국외교부 알umni 회원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 에콜폴리테크닉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포스텍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성엽 박사를 한국프랑스 알umni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15 명의 알umni 이들을 자랑스러운 한국프랑스 알umni 의 얼굴들로 선정했다.



포럼과 박람회

2017 년부터 한불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후원으로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포럼을 격년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차기대회를 프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유학박람회 « Etudier en France »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프랑스가 주빈국으로 초청되는 해외유학박람회 « Study abroad Fair »차원에서 프랑스유학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홍보

프랑스대사관에서는 2017년부터 2달에 한번 한국언론에서 보도되는 고등교육 및 연구분야에 관한 미디어모니터링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프랑스교육진흥원인 캠퍼스 프랑스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한국학생들을 비롯하여 여러 업무파트너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현재 2500명 이상이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고 있으며 프랑스유학에 관심있는 한국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